

'세계 자살 예방의 날(9월10일)'이 있고 나라마다 고을마다 '자살예방협회'라는 것이 있다.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며 최우선 가치로 존중되어야 한다'거나 '자살은 어떤 이유로도 미화되거나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고개를 끄덕일만한 여러 주장을 들을 수 있다.

자살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더구나 한국은 2003년까지만 해도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가입국 가운데 10위의 자살률을 보여주더니 해마다 순위가 올라 지금은 상위 자리를 다분다고 하니 자살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이제 세계적 주목국이 된 셈이다.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IT문화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인터넷에는 자살을 부추기는 사이트도 있고 이런 사이트는 자살을 도모하기까지 한다. 여기서 '생명존엄' 이라고 하는 것은 '김이 빠지는' 소리에 불과하다.

역사적으로 자살은 대부분의 문화에서 금기시돼 왔다고 알고 있다. 여기서 대부분이라 한 것은 금기시되지 않았던 문화도 있었고 또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발생 전 서양에는 '자살학교'라는 것이 있었고 여기서는 '공인으로서 참을 수 없는 치욕을 당했거나 명예의 손상, 국가적 위기에 자살' 하는 것 등을 권장하기도 했다. 지난세기가



불자 세상보기

김정자 칼럼니스트

해마다 느는 자살 인구

지난 해도 이웃 일본에서 비슷한 명분으로 자기 배를 칼로 갈라 죽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기도 했으니 인간들의 생각은 동서양이 비슷했던 모양이다.

한국역사에도 이런 종류의 자살은 금기시되지 않았다. 낙화암의 삼천궁녀도 있고, 여인들이 지냈던 은장도의 용도도 그러하니와 전쟁사에서 외국과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 굴욕보다 오히려 자살을 택한 군인들에 대한 기록도 적지 않다.

이런 저런 종교에서 터러 '거룩한 자살'이라 불러 온 것도 있다. 그런데 왜 자살은 어떤 이유

로도 미화되거나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날 은근히 권장되기도 했던 자살에 대한 명분들이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거나 헛된 것이라는 것을 보면서 자살을 하는 것을 더 이상 권장할 리 없다. 그런 것은 이제 아주 드물기도 할뿐더러 감동을 주지도 않는다.

대신 현대인은 개인이나 가족의 불행, 사회적 응력의 부족, 욕망 충족에 대한 좌절과 절망, 배반, 비관, 우울증 등 개인의 인내력으로 견딜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을 때 자살을 결행한다. 그렇다고 문제가 단순히 개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부조리와 더불어 잘못된 그물처럼 된 사회적 관계가 개인을 자살로 몰기 때문이다.

절대 가난 속에 사는 후진국 보다 잘 사는 선진국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상대적 빈곤이라든가 선진국적 부조리 탓일 것이다.

낮이 없는 겨울을 보내야 하는 나라, 그래서 우울증 환자의 자살로 세계 자살률 통계에서 한 번도 상위를 양보해 보지 않은 나라 핀란드, 그 나라의 대표적 작가인 아르토 파실리나가 쓴 소설 '기발한 자살여행'을 보면 한번쯤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현대인의 유형이 모두 나온다.

과정에 이른 부부, 파산, 육체적 정신적 고통, 왕따, 노화, 여기에 그냥 살기 싫어 죽고 싶은 사람까지 수많은 이유로 자살 지망생들이 버스 하나를 탈취해서 '죽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다 결국은 '왜 이 아름다운 세상의 좋은 삶을...' 하면서 각자 흩어지는 블랙 코미디로 넘치는 이야기.

우리는 여기서 '생명 존엄성' 운운하는 정색하는 자살 예방 구호 보다 더 절실한 삶의 가치와 자살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한편 정색하는 자살예방 대책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도 든다.

불자의 눈

법계 바로서야 승단이 바로 선다

학력과 경력 위주 문제가 세 세상을 뒤덮고 있다. 신정아 前 동국대 교수의 허위학력 의혹 제기는 이제 그 범위를 넓힐 대로 넓혀 정치권과 종단까지 뒤흔들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불자들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하다. 한 순간의 욕망이 지어낸 거짓이 종국에는 범죄로 이어지는 이 엄연한 인과의 고리를 바라보며 누구나 오락악세의 요지경 속을 벗어날 수 없다는 좌절감마저 느낀다. 인간에게 희망은 없는가? 비아호르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단계다.

그런 가운데 조계종 법계위원회가 희망적인 결단을 내렸다. 법계 심사에서 해당자의 범죄 기록 유무를 따지고 경력과 호적관계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도를 이루는 데는 행정적 원칙이라 할 법계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 종단의 인적 질서가 유지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장치다. 법계는 스님들의 경력과 업적 등을 망라해 승가 내부에서 정한 계급적 질서이기 때문이다.

이 법계는 그동안 시간성에 의존된 경향이 있었다. 어느 품계를 받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의 품계로 올라가는 데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종단 내부에서 큰 물의를 빚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경우 '좋은 게 좋은 것'이란 식으로 인식됐던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법계위원회의 결정은 그런 관례를 부정하고 있다. 품계가 갖는 권위를 철저히 지키는 기본적인 방법은 품계에 걸맞는 대상자에게만 품계를 주는 것이다.

이번 법계위원회의 결단이 시류적인 것이 아니라 종단의 근간을 튼튼하게 지키는 힘이 되길 기대한다. 승단을 유지하는 내부 골격이 빈틈하지 않고서는 급변하는 세속의 현실에 '당당한 승단'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송과 투서' 악습 못 버리나

조계종의 고질적인 병폐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회법에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괴문서' '투서'라 불리는 유언비어의 살포다. 돌이켜 보면 조계종의 현대사는 이 두 악습 때문에 멍들고 상처 냈다.

최근의 조계종도 악습에 휘말리고 있다. 소위 '신정아 사건'으로 위상이 땅에 떨어진 종립 동국대학에서 장학금 유용 사실이 드러났다. 유용의 당사자인 종진급 교수가 불교대학장을 맡고 있는 교수(스님)의 중·고교 학력 문제를 들춰냈다.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동원했다. 사실관계를 떠나 '이런 시집'에 '그런 문제'를 '그런 사람'이 터뜨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이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땅에 떨어진 학교 권위를 아예 짓밟아 뚝치는 처사'라고 밖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또 총무원장 직관 스님을 상대로 중원 스님이 낸 각종 소송도 불교계를 바라보는 대중적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관음사 사태가 최근의 조계종 위신 실추의 한 축이었는데 '관음사의 오랜 주인'이었던 중원 스님이 소송의 당사자로 나선 것이 불자와 국민들에게는 좋게 보일 수 없기 때문이다. 내부문제를 사회법으로 끌고 갈 때는 '오죽하면'이란 면피성 술어가 따라 붙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더 큰 틀에서의 종단 상황을 보는 혜안이 절실하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종교자유' 칼럼

29. 아프간의 교훈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국내·외 과도한 선교활동 제한 법제화 필요

두 명의 선교활동가의 희생과 함께 온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탈레반 피랍 사태가 종결되었다. 그런데 뒷맛이 씁쓸하고 마음이 착잡하다. 이 사건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 때문이라. 문제의 핵심은 개신교의 무분별한 해외선교, 정부의 미숙한 대처, 그리고 구상권 청구 논란 등 세 가지가 아닐까 싶다.

첫째, 개신교의 무모한 선교전략이다. '타문화와 타종교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을 선교 성과로 자랑스럽게 내세워왔던 한국의 개신교 근본주의 전통이 이번 사태의 배경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개신교인들의 무모한 전도행태에 대해 그동안 경고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그때마다 사회분쇄와 하지 못하고 관대했던 것이 오히려 내성을 키운 것 아니냐는 자조의 목소리도 있다. 이번 해외선교 소동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격언을 다시 상기시킨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태가 종결되자마자 '잘못한 것 없다. 모든 게 신의 뜻이고 이번 석방도 기도에 응답한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주장한다니 기가 찰 일이다. 두 사람의

죽음도 그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죽은 이들 가족의 가슴에 또 한 번 못질을 해두고, 함께 정신적인 인질이 되어 심리적 고통을 당했던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선교과총 책임자인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는 한 술 더 떠 "이번 사태로 선교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3000명의 배령규가 나와야 한다"며 선동적인 설교를 했고, 심지어 어느 피랍자의 어머니는 "세상 사람들이 별별 소리를 다하며 떠들고 난리를 부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고 결과를 내실 것인지 기대가 크고, 속으로 신나고 재미있다"고 신앙간증을 했다. 그 비이성적인 언행과 변질에 할 말을 잃는다.

'사회와 소통이 안 되는 단 세상 사람들' 같은 일부 개신교인들과 '죽을지언정 개종은 없다'는 이슬람교인들이 부딪혔으니 사고는 당연히 예견된 것이었다. 헌팅턴이 우려했던 '문명의 충돌'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던가.

둘째, 정부의 안이하고 무원칙한 대처다. 사상 초유의 피랍사태에서 그나마 이 정도 선에서 해결한 것을 잘했다고 국정원장이 무용담처럼 떠벌리는 것도 영 믿음직스럽지 못한다. 몸값 지불설, 테러집단과의 협상불가라는 국제원칙 무시



샘물교회의 단기선교 보고회 모습. 뒷벽 왼쪽에 아프가니스탄 국기가 걸려 있다.

등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긴 것은 더 큰 문제다. 이 사태의 여파로 아프간이 여행제한국에서 한 단계 높은 여행금지국이 됨에 따라 모든 걸 포기하고 귀국해야만 하는 아무 죄 없는 200여 교민들과 순수 봉사자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을 것인가. 더구나 이러한 정부의 직접 개입 선례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이 납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불안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셋째, 국가와 개인의 관계 설정 문제다. 우리 사회에서 최초로 제기된 '국가의 국민보호 책임의 한계'에 관한 근본적인 명제로서, 급한 상황에서 국가가 먼저 어느 경비에 대해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가 조질일 것이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 천축, 연속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모범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생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하늘의 소리 소리 I·II·III권

성서(聖書)의 Word(말씀) <수능엄경>의 관음법문

요가 대수행자의 마지막 수행처 선가(仙家)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상단전의 비밀' 오늘, 그 비기(秘記)를 공개한다.

'무소의 뿔처럼' '백척간무에 진일보' 보다 먼저 바로 볼 수 있는 정견(正見)을 가져야 한다.

즉각 깨닫는 길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1권 336쪽, 2권 344쪽, 3권 344쪽 / 각권 10,000원

불성이 곧 본성(本性)이며, 위대한 실체다

간화선의 화두 '남방의 위빠사나' 도 아니다.
오직, 묘축을 만나야 하며 관음을 득해야 한다.
묘축(妙觸)은 업장의 현주소이며 맑음의 바로메타.
관음(觀音)은 <범음, 해조음, 승피계간음>으로 천상의 음악이다.

“좋은 분들에게 선물, 감동을 주는 책”
지금 바로 펼쳐보십시오!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288쪽 / 정가 10,000원

신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정본/총월 소남/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양정본/김백만 편저/50,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정본/김성진 지음/30,000원	글로벌작명학의 디자인 신국판/양정본/박수봉 지음/20,000원
--	--	--	--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